

국토부, 인천공항 컨세션 입점 업체 임대료 3개월 유예

(식음료 위탁 운영)

중소는 6개월 감면... 중견·대기업은 유예 '생색내기'

업계 관계자들 “정상 영업 불가능 실질적인 지원방안과는 거리 멀어”

인천공항소 “임의로 인하 어려워”



SKY31 푸드 에비뉴 인천

/롯데지알에스

정부가 내놓은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정책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제외되면서 인천공항 컨세션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견·대기업에 임대료 인하 대신 '3개월 납부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업체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9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상업시설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식음매장 대표와 임원들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은 매장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임대료는 물론이고 직원 급여조차 지

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사의 지원이 늦어질 경우 많은 매장이 철수하거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간담회 전날인 18일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과 식음료 업체에 대한 방안을 내

놨다. 국토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시설 임대료의 25%를 이달부터 6개월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을 포함한 국내 공항 내 상업 시설에는 3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

련,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20~35%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16일 국토부 측에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결론이 ‘임대료 유예’였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공사 측이 임의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추가대책으로 발표한 ‘임대료 납부 유예’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SPC, 롯데지알에스, CJ푸드빌, 아워홈 등이 입점해 컨세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인천공항 컨세션 2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가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월 매출 감소 폭은 2월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컨세션 사업은 사실 상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애초에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며 “임대료 납부 유예라는 대책은 사실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임대료 납부 유예를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주장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매장 운영 시간 축소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4시간까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일부 매장은 휴점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농아인협회 등 6개 장애인 단체들이 대학 온라인 강의에 수어 교육과 수어 통역을 지원하라고 인권을 위해 진정서를 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온라인강의 따라갈 수 없는 장애 학생들

“대부분 자막·수어 없어... 학습권 침해”

한국농아인협회 등 진정서 제출 면대면 강의서도 학습 시스템 부족

#2017년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농아인 학생 A 씨는 수화나 자막 없이 이뤄지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도우미 학생을 통해 수업 내용을 타자로 쳐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타자 소리가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수어 통역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별다른 도움 없이 수업을 듣던 A 씨는 언저푸 F학점을 받고 결국 스스로 휴학했다.

장애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강의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면서 대학 측이 서둘러 마련한 신학기 동영상 강의 대부분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들을 위한 자막서비스는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이 일반적인 면대면 강의에서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 허물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대

학연합회는 농아인 대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 대학에 장애 학생은 10만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대학에 이들을 위한 학습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담겼다.

김주현 장애벽허물기 대표는 “일부 대학이 온라인 공개 강의 사이트인 ‘K-MOOC’와 ‘KOCW’에 올라온 강의와 학교 과목이 유사한 경우 대체 수업을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강의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 학생들의 접근성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농아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개강을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강의실마다 마스크를 끼는 등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상황 시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벽허물기 소속 농아인 대학생 A 씨는 “대학 생활 중 자막지원과 관련한 기기 및 수어 통역 지원의 미흡으로 학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 자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현진 기자 ihj@

눈으로 색감 확인·온라인몰 세일 언택트 소비 발 맞추는 H&B업계

CJ올리브영 색조 테스터 종이·컬러칩 활용

롭스 온라인몰만 봄 세일 진행 띠라블라 요기요와 배달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화장품 쇼핑 환경을 변화시켰다.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피부에 직접적인 테스트 대신 비치된 ‘색조 테스터 종이’와 ‘컬러칩’을 활용하는가 하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등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CJ올리브영은 교차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색조 테스터 종이’와 ‘컬러칩’을 비치, 피부 테스트 없이 눈으로만 색조 화장품의 색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 고객에게 계산대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들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용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매장보다 온라인몰을 찾는 고객은 꾸준히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직원이 고객에게 ‘색조 테스터 종이’ 사용을 안내하는 모습 /CJ 올리브영

준히 많아지고 있다. 롭스(LOHB's)에 따르면, 온라인몰 2월 매출이 1월 대비 124% 증가하는 등 언택트 소비가 증가했다. 이에 롭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몰에서만 봄 세일을 진행한다.

기초와 색조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 헤어케어 인기 상품을 10%에서 최대 68%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기간별 추가 할인쿠폰과 선물도 제공한다.

자주 쓰는 화장품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 화장품의 경우 반복 구매도가 높기 때문에 언택트 소비 확산과 함께 배송 서비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띠라블라는

지난 13일부터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요기요와의 배달 서비스 제휴 테스트를 거쳐 전국 GS25 점포로 서비스를 확대한 성공 사례에 힘입어 띠라블라에서도 시범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것. 이번에 배달 서비스가 제휴된 띠라블라 점포는 ▲신촌 ▲홍대 ▲잠실 등 서울시 주요 상권 내 5개 점포다.

띠라블라는 현재 100여 종의 배송 가능 상품을 4월부터 200여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점포로의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클로로퀸’, 코로나 치료효과 임상시험 추진

(말라리아 치료제)

식약처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 가능한지 시험을 지시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의 치료효과

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과

를 확인하고자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연구책임자는 대한감염학회 학술이사인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감염내과 교수이다.

이들 약물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에 긴급하게 쓰이고 있지만,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는 아직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